

## 세계 경제전망 세미나 참석 및 철강 관련 기관 방문

- 김주한 선임연구위원(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)

### 1. 출장 개요

- 출장자: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주한
- 기간: 2011년 10월 24일(월)~10월 30일(일)
- 지역: 미국 워싱턴 DC
- 목적: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주최하는 세계 경제전망 세미나 참석 및 철강 관련 기관 방문
- 일정

일자	수행업무	비고
10월 24일	인천→워싱턴	출국
10월 25일~26일	세미나 참석	

10월 27일	AISI, ISRI 방문	
10월 28일	GI 방문 및 자료정리	
10월 29일~30일	워싱턴→인천	귀국

## 2. 출장 내역

### (1) 세미나 참석

#### □ 세미나 내용

○ IHS 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는 25~26일 양일간 개최되었음

- 첫째 날은 세계경제, 미국경제, 유럽경제 전망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 가격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,
- 둘째 날은 중남미의 브라질, 아시아의 중국, 인도네시아 등 주요 지역별 경제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.

○ 철강산업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세계 및 지역별 경제성장과 교역전망에 주안점을 두고 참관

- 세계경제 성장의 큰 흐름은 200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선진권의 저성장, 개도권의 고성장이라는 이중 구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부진이 2012년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며, 개도권 역시 선진권의 영향으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나, 전반적으로는 2012년을 저점으로 2013년부터 점차 회복 단계에 접어

들 것으로 전망

- 구미에서 유로권은 그리스의 국가부도 여부와 여타 PIIGS의 재정적자 문제로, 북미권은 미국의 경기부진과 그로 인한 캐나다, 멕시코 등으로의 파급영향 등으로 2012년에도 전반적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.
  - 그리스의 국가부도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으며, 부도 후 유로권 탈퇴 여부가 관심 사항이나 탈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
  - 유로권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  - 반면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은 2~4%의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
  - 미국 경제는 유로존의 또 다른 충격이 없는 한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신히 꾸려가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체로 수출의존성이 높은 만큼 선진권 부진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급격한 둔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.
  - 아시아권은 일본과 중국이 이 지역 성장 유지하는 버팀목 노릇을 할 것으로 전망
  - 아시아권 역시 유럽의 재정위기의 전개 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
- 일본은 지진의 영향에서 거의 탈피해서 2012년은 건설을 포함하여 비교적 높은 성장이 예상되나 엔고의 영향 극복이 관건
- 중국경제는 소프트 랜딩과 인플레이션 억제 여부에 주목. 12.5규 획기간의 성장률은 과거의 7.5%에서 7%로 낮춘 반면 복지의 비중을 높이는 질적 성장에 무게의 중심을 두는 정책 추구
- 중국내에서도 중국 내륙의 산업화, 도시화와 함께 인프라 구축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, 기존의 성장 촉진 연안의 성장세는 둔화 전망
- 인도 역시 금융긴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가 더블 딥에 빠 지지는 않겠지만 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는 국면임. 산업활동은 지난 2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생산과 소비 모두 자신감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으나 2012년 말경에는 반등 예상

#### □ 시사점

- 내년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여부와 그 파급영향이 최대 관심 사항이나,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듯함.
  - 지역별 영향도 개도권보다는 선진권에 많은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선진권의 경제성장의 둔화 폭이 클 것으로 예상
- 2012년 세계 경제는 지난 2년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철강 수요도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
  - 철강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권의 성장률이 선진권에 비해 높은 것은 다소 고무적이긴 하지만 철강 대량 생산 및 소비처인 중

국, 인도의 성장 둔화는 우리나라, 일본 등 주변국들의 철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○ 세계경제의 둔화, 특히 개도권의 성장 둔화는 철강수요 둔화 내지 감소로 이어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철강업체간의 치열한 수출 경쟁 야기

- 특히 한국, 중국, 일본 등 동북아 3국은 공급과잉의 양상이 점차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글로벌 수출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

## (2) 관련 기관 방문

### 1) 미국 철강협회(AISI)

○ 주소 및 연락처: 1140 Connecticut Avenue, NW Suite 705, Washington, DC 20036 Phone 202.452.7203

○ 면담자: Robert MacDonald( Director, Statistics Division)

### ○ 면담내용

- 미국의 조강생산은 금년 10월 27일 현재 총 7,707만 6천 톤을 생산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6.9%의 증가율 기록, 설비 가동률은 74.7%로 지난해 동기의 70.8%에 비해 3.9% 포인트 증가

- 2010년 미국의 철강제품 생산은 8,344만 톤이었으며 그 중 판재류가 53%, 봉형강류 23%, 후판 11%, 강관 5%, 기타 8%였음.

- 철강재 소비는 스틸서비스 센터 27%, 건설 22%, 자동차 13%, 수출 13%, 정유 3%, 컨테이너 3%, 가전 2%, 기타 미분류 19% 등의 수입.
- 미국의 철강수입은 2010년 10.9만 톤을 기록 2009년에 비해 31.3% 증가했지만,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05년의 26.1만 톤의 42% 수준에 불과
- 미국 철강산업은 에너지 효율성, 탄소배출 감소,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쏟고 있으며, 기술개발과 인력혁신을 통해 1990년 이래 생산성은 30%, 이산화탄소 배출은 35% 각각 절감 효과를 거둠
- 유럽 경제가 큰 충격없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, 미국 철강소비는 금년이 작년에 비해 13% 증가한 약 9천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, 내년에는 금년보다 5% 정도 증가한 94백만 톤 수준으로 전망
  -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입은 7% 정도 감소하는 반면 수출은 4% 정도 증가 예상

## 2) Global Insight Washington office

- 주소 및 연락처: 1150 Connecticut Ave, NW Suite 401  
Washington, D.C. 20036 Phone 202.481.9231
- 면담자: John Anton(Director, Steel Service Division)
- 면담내용
  - 철강산업의 수요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은 부서 자체에서 독자적으로

추진하기보다는 글로벌 인사이트내에 여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 
작업 수행

- 철강재 가격은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지속 전망.  
범용강재는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이 예상. 미국의 철강재 가  
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서 더 큰 폭의  
하락으로 이어지고 지역, 국가에 따른 가격차가 크게 좁혀질 것으로  
전망
- 스테인레스강과 합금강 역시 가격 하락이 예상되나 범용강재보다는  
크지 않을 것임. 합금강 원소로 사용되는 니켈의 가격이 하락하고  
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
-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철강재 수급이 균형을 이루어 왔고 금년 말  
까지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.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미 판  
재류 시장에서 공급 과잉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을 압박
  - 미국 내 상당한 규모의 설비가 신규로 가동에 들어가고 있는 반면  
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입 압력 증가로 시중의 재고 증가와  
함께 가격 하락 압력 증가
-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이고 있음.  
미국과 유럽의 부진으로 경기 침체 후 기대한 만큼 강한 회복세를  
보이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.

### 3) ISRI(Institute of Scrap Recycling Industries, Inc.)

- 주소:1615 L Street, NW, Suite 600 Washington, DC 20036
- 회원제로 운영되며 비회원은 면담 거절로 관련 자료만 입수

○ 관련 내용

- ISRI는 순수 회원제의 사설 기관으로서 스크랩 리사이클링 산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교육 또는 대변을 통해 회원들을 지원하는 조직
  - 철강, 비철금속, 종이, 전자제품, 고무, 플라스틱, 유리, 섬유 등에 이르는 전 품목과 관련된 리사이클링 관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
  - 미국과 전 세계 30개 나라에 7,000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1,600개의 사업체를 회원으로 보유
  - 미국에서 리사이클링에 종사하는 남녀 종사자는 130,000명에 이름
-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리사이클링산업은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여 2009년 이후 약 40%의 성장률을 기록
  - 미국에서 생산되는 철강의 60% 이상이 철스크랩으로, 알루미늄의 60% 가량의 재활용 알루미늄에서, 종이의 36% 이상이 폐지로 제조됨,
- 리사이클링 산업은 세계 최초의 환경 및 에너지 보호산업의 하나
  - 리사이클링에 의한 에너지 절약률은 각각 알루미늄은 92%, 동 90%, 플라스틱 87%, 철강 56%, 종이 65%에 이름
  - 미국에서는 연간 1억 3천톤의 스크랩이 처리되는데 품목별로 보면, 7,400만톤의 철스크랩, 4,700만톤의 폐지, 460만톤의 알루미늄, 350만톤의 전자제품, 180만톤의 동스크랩, 120만톤의 연, 110만톤의 플라스틱, 162만톤의 아연, 9,000만개의 타이어가 처리됨